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4월호
2021



<La Cueva Sunset, West> by Wilson Hurley Cover Story: 5페이지

CONTENTS

한인회소식 NM 한인여러분! 윤태자: 2	영어상식 영어이야기 (13) 이상목 : 17
한인회 소식 마스크 배포에 관하여 : 3	수필 서랍정리 조혜란 : 19
국내소식 화성 탐사선이 착륙에 성공: 4	생활상식 내가 할수있는 TAX절세방법 이한주: 21
COVER STORY 알버커키의 자랑, 윌슨 헐리: 5	지역소식 아마존의 알버커키 시설확장/ 샌디아연구소 인력크게 늘어나 : 22
칼럼 COVID-19에서 듣는 교훈 나정용 : 7	지역소식 부고-로버트컬크햄교수, 한명섭선생: 23
칼럼 전염병 이후에 김기천 : 8	지역소식 새 J&J 백신 추가/김명주씨 회갑 : 24
수필 커피 이정길 : 9	광고 포스터: 24
칼럼 코로나 하프타임에서 김민순: 10	광고 뉴멕시코 한인교회 안내 : 25
수필 입장바뀌 생각하자! 나정자: 12	광고 알버커키 한인업소 : 26
영화 한인이민가정 다룬 영화 “미나리” : 13	광고 뉴멕시코 한인업소 : 27
수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손길 김준호: 15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은 행정업무 파악과 임원진 이사진 회의등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2월에는 회관보수를 위한 견적을 여러군데서 뽑아 비교하며 5가지 공사 중에서 어느것을 먼저 할것인가를 고심하기도 하였습니다.

1-한국학교 교실 보수

2-회관 전체 지붕 방수공사

3-회관 내부 페인팅

4-화장실 부엌 바닥 교체

5-부엌 카비넷 교체

위의 5가지 견적은 총 54,381불이 나왔기에 금액이 마련되는데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엌공사 후원금이 먼저 마련되어 임원들은 짐을 다 앞쪽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천사가 나타나 부엌과 화장실 페인트를 이틀에 걸쳐 칠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획된 사업의 반이라도 할수있기를 바라며 후원금이 모이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한국학교 교장 이수신씨의 20년지기 친구인 건설회사 사장 Jerome Eckstein의 마음을 움직여 한인회를 돕기로 하고 new roof와 교실 remodel을 만불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때 정말 머리가 아찔했어요.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계속 연이어 일어 났습니다.

문상귀 전회장님이 소개한 사장님은 부엌 카비넷을 위아래 새로 맞추는데 1500불에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장님은 카비넷 페인팅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를 손볼데가 있는데 이재호씨가 연장통을 들고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공사를 하기위해 짐을 옮겨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더니 6명의 천사들이 예배후 회관으로 와서 다 옮겨주고 갔습니다.

또한 후원성금은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1500불-양재숙,조문성,신옥주 (카렌)

1400불- 이수신

1000불-박순삼,신광순,이인 ,한영수와 최영미 형제.

500불-안교정,임혜숙,위점덕,무명1.

300불-고덕효,이명길,김길자,박연복

200불 -조은순,김준호

150불-장상순

100불-유금림,한명섭,이선미

70불-I.M. Simpson.

위의 분들이 오늘까지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엌 바닥은 타일로 교체하는 공사가 끝났고 지붕 방수공사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교실 공사중입니다.

앞으로도 교민들의 후원금이 모여 회관의 여러군데 보수를 할수 있도록 계속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외에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하여 마스크를 5000장을 보내 주셨습니다. 미주 한인회 서남부연합회에서 마스크를 2000장 보내 주셨으며 정풍자 전회장님께서도 마스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알버커키와 산타페에 39명의 6.25 참전용사가 생존해 계심을 알게 되었고 일인당 30장씩의 마스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보훈병원에도 일정량의 마스크를 소포로 보낼것입니다

그외 한인들에게 일인당 6장씩 나누어 드리기로 했고 6개 지부와 교회에는 명단이 확인되는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분의 마스크가 남는다면 한인회 행사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

앞으로도 한인회는 임원진들이 힘을 합하여

성심성의껏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지만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자 드림.

한인회 소식



지붕 전체 방수공사를 마친 후의 사진



6.25 참전용사 Stan 전 회장님과 목사님들과 임원진



한국학교 교실 공사중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마스크 배포에 관하여

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정부 국가보훈처에서 마스크를 5000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부는 Truth or Consequences 지역에 있는 보훈병원과 알버커키와 산타페에 계신 6.25 참전용사들과 가족분들께 전달할 것입니다. 많은 참전용사들께 직접 모두 배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인회의 행사때를 통해서나 아니면 한인분들께 배포하여도 된다는 담당자의 메일을 받았기에 일부를 한인분들께 나누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각 교회와 단체는 한인수를 파악하여 책임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외에 분들에게는 한인회에서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마스크 배포 일시

장소: 한인회관

시간: 2021년 2월 27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021년 3월 6 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감사합니다.

한인회장 윤태자 드림

(추가소식: 보훈병원에 계신 10명의 참전 용사님께도 감사의 편지와 일정량의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국내소식



화성 탐사선이 착륙에 성공

NASA의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 탐사선이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탐사선은 지면으로 순조롭게 내려간 후 2월 18일 동부 표준시 오후 3시 55 분경에 착륙했다. 퍼서비어런스의 엔지니어링 카메라는 착륙 직후 착륙 지점 주변의 영상 이미지를 지구로 보냈다.

NASA는 지난해 7월 말 플로리다 주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퍼서비어런스를 발사했다. 붉은 행성, 화성에 도착한 때를 같이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중국도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보내어 화성 주위를 공전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화성 표면에 안전하게 자리 잡은 퍼서비어런스는 한때 호수였던 화성의 Jezero Crater의 28마일 구역을 탐사할 것이다. 탐사선이 그곳에 있는 동안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NASA의 희망사항이다.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드릴을 배치하기 전에 유력한 사이트를 찾기 위해 기존 및 자외선 카메라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사용할것이다. NASA는 채취한 샘플을 2026년에 지구로 가져 올 계획이라고 한다.

Jinok Hur OH69285/CA

장수시대!!

암.치매.중병.장기요양등이 걱정되시나요?
실속있게 꼭 필요한 보장까지 꼼꼼히!
가족과 나를 위한 생명보험
선택 아닌 필수!



상담은 바로 지금! 408.210.6972



‘허진옥 보험’

의미 있는 일,
영향력 있는 미래를
꿈꾸시나요?

지금 도전하세요!

COVER STORY

알버커키의 자랑, 월슨 헐리

항공편으로 알버커키에 들어 오는 여행객은 알버커키 썬포트(sunport) 공항 건물의 Great Hall 로비를 거쳐 나오게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좌우 벽에 걸려있는 뉴멕시코의 저녁 경치를 그린 대형 그림을 볼 수 있다. 1988년 공항 건물이 지금의 규모로 확장될 때 공항의 장식을 위해 화가 월슨 헐리가 그린 63"x135" 크기의 유화(오일페인팅)이다. 동쪽 벽에 걸린 그림은 "La Cueva Sunset, East,"(라쿠에바 일몰, 동쪽)으로 해 질 무렵에 샌디아산의 라쿠에바 케년에 비친 해빛이 샌디아산에 비쳐서 붉은 색으로 반사되는 장엄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반대편 서쪽벽에는 "La Cueva Sunset, West"(라쿠에바 일몰, 서쪽)라는 이름의 그림인데 라쿠에바 케년에서 리오그란데 강 서쪽하늘의 저녁노을을 바라본 그림이다. (표지 참조) 두 그림 모두 유화임에도 사실적인 정교한 그림이어서 멀리서 보면 사진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정열을 표현한 그림이다. 공항에 있는 월슨 헐리의 그림을 광야의 소리 표지에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 허락을 썬포트 공항 미술관리실에 문의하였더니 월슨 헐리 씨의 미망인 로스린 여사를 소개해 주어 로스린여사와 서신을 주고받게 되었고 사용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작고한 남편 헐리씨의 그림과 그의 일생에 대해서



La Cueva Sunset, East

얘기도 주고받게 되었다. 광야의 소리가 한국인을 위한 뉴스레터라는 것을 알고 로스린 여사는 남편 헐리씨와 한국인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그가 월남전에 파병되었을 때 한국군 맹호부대에 연락장교로 복무했으며 단발 세스나 파일럿으로서 맹호부대 전방 전투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전방 상공에서 전투기 지원이나 포사격 지원을 통제하는 FAC(Forward Air Controller) 작전 임무를 150회나 수행했다는 놀라운 얘기도 듣게 되었다. 한국군과 함께 김치를 즐겼다는 얘기도 들었다. 로스린 여사는 관련 사진도 몇 장 보내 주셨다. 지면 관계로 모두 올리지는 못하지만, 광야의 소리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는 모두 볼 수 있도록 링크 연결을 해 놓을 계획이다. 월슨 헐리는 1924년 오클라호마주 털사(Tulsa)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부친이 후버대통령 내각에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ROK Capitol Division (Tiger) Left to right Major Jo, Lt/Col Kim, Lt/Col No 2nd Bn Commander, Major Hurley ALO/FAC, Col Lee Soon Gil first Regt. Commander, Lt/Col Chun Deputy Commander. 12.7 mm gun captured 1 March 1969 north of Binh Khe, E. H.T. 1 March 1969.



전쟁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워싱턴 DC로 이사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월슨의 어머니는 미국 풍경화 화가 George Inness, Albert Bierstadt, Thomas Moran, Frederick Church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여러 미술관을 데리고 다니며 월슨의 미술에 관한 재능을 밀어주고 격려해 주었다. 월슨이 10살 때 그의 가족은 산타페로 이사를 왔고 로스 알라모스의 렌치 학교를 마치고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였고 졸업 후 남태평양에 참전했으나 곧 2차대전이 끝나 돌아왔다. 그 후 워싱턴에 있는 조지워싱턴 대학원에 들어가 법과를 마치고 변호사 생활로 직업을 바꾸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샌디아국립연구소에 취직하여 엔지니어로 직업을 바꾸었으나 엔지니어란 직업 역시 만족할 수가 없어서 개인적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뉴멕시코 항공 내셔널 가드에 들어가서 F-100 제트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고 그림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나이 40에 늦게 시작한 그림은 약 5년 동안 한 장의 그림도 팔아보지 못했으나 그림에 열정은 조금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미술 활동이 1968년 월남전에 파병됨으로 중단된다. 그가 속한 뉴멕시코 항공 방위군은 한국군

수도 사단 맹호 부대를 지원하도록 했고 그는 이들을 지원하는 FAC 장교로 배치되었다. 다음 해 귀국하여 Rosalyn Roembke와 결혼하였고 다시 미술에 전념하게 됐다. 그가 월남에서 전쟁 중에는 그림을 못 그렸지만 돌아온 후 월남에서 겪은 기억을 기초로 많은 월남전과 관련된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페터슨 공군박물관에 기증했다. 그의 조종사 경력과 미술 재능이 그려내는 항공 관련 그림이 널리 인정 받아 NASA에서도 초청받아 우주항공에 관련되는 그림도 많이 그리게 되었다.

월슨 헐리는 그의 풍경화로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그의 그림 중 800 백 점 이상이 개인 및 기업체 소장품으로 분류된다. 그의 작품이 소장된 박물관은



Cover Photo of wilson-hurley.com website

10 개 이상이 된다.

Hurley는 1996년에 오클라호마 명예의 전당에 올려 졌으며 2002년에 그 주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에 알버커키 박물관 재단에서는 그를 뉴멕시코의 두 번째 주요 인물로 선정했다.

최근에 UNM Press에서 출간한 책인 “월슨 헐리의 삶과 예술(The Life and Art of Wilson Hurley: Celebrating the Richness of Reality)”에는 그의 그림과 고인의 아내 로잘린이 쓴 월슨 헐리의 삶의 여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한다. 유가족이 편집해서 만든 웹사이트 www.wilson-hurley.com에서 상세한 그의 일생과 그림 그리고 동영상 등을 볼 수도 있다. (글: 편집부 이경화) ■

칼럼

COVID-19에서 듣는 교훈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은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이 소중한 ‘관계’가 부지중에 소원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크게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관계의 줄’은 마치 태아가 탯줄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이번 기회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번 Covid-19은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 규범까지 만들어 모두를 고립 내지 격리시키는 행태로 아름다운 삶의 교제를 막는가 하면 교회에서의 거룩한 예배조차 감히 가로 막고 서는 무례함이란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수 있었고, 잃었던 나라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단에 엮드릴 때 단순해 집니다. 우리에게 생명바쳐 할 일, 즉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살았으나 죽은것 같이 사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어 소망을 찾게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런것들은 그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Covid-19에 휘둘려 지치고 쓰러질 우리가 아닙니다.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니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것 같은 허약한 의식을 정비하여 굳건히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어 냅시다. 작은 촛불은 가는 바람에도 꺼지지만 큰 불은 그 바람때문에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을만큼 심한 고생을 한 후에라야 순리대로 시원하게 내 코로 숨쉬며 입으로 먹으며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에 최고의 감사를 알게 된답니다. 잘만하면 최고의 비밀을 터득하는 길! 지고의 하나님을 만날수 있는 길이 고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Virus의 횡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해지고, 따라서 점점 메말라 가던 심령은 더 이상 견딜수 없어 예서 제서 생존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이, Covid-19 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평소의 철없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약속이지만 무서운 경고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살고 있는 신비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살길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줄로 단단히 연결되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생명줄을 통하여 내려오는 그분의 신비한 열기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뜨겁게 하여 만 병의 원인이었던 저체온 증세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약속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까지 열어 주십니다. 이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세상을 살 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주의 증인으로 살 게 됩니다.

고되기만 했던 세상만사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 게 된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야 제대로 됩니다. 조그만 변화도 거부하며 변화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 하던 겁쟁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 주관자의 자녀로 덕스럽고 넉넉하게 회복, 변화되는 모습이 여간 장하고 감격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세상, 그 비밀을 살 게 됩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칼럼

전염병 이후에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그동안 바라던 것처럼 전염병이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민들은 서둘러 기뻐하지 않았다.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렬했던 반면에 그들이 지나온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염병의 급격한 종말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새로운 희생자가 나오고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주간 통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건강한 시대가 돌아오길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중 하나는 주민들이 물론 희망을 말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워하지만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세워질 새로운 생활 질서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이용해왔던 시설들이 금방 재개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열고 세우는 것은 문을 닫고 부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느리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은근한 기대 뒤에 더 많은 바람이 있으면서도 전염병이 금방 없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곤 하였다. 사실 전염병이 빨리 수그러들지는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pp. 269-270, The Plague, written by Albert Camus, translated by Stuart Gilbert, Vintage Books, 1975)”

위에 내용은 노벨상 수상자인 알베르 까뮈가 1947년에 쓴 소설 “흑사병(La Peste)”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쥐로 인해 발생하는 “페스트”는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죽어가기에 “흑사병”이라고 불립니다. 까뮈의 소설 흑사병에도 쥐가 병들어 죽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페스트로 인해 도시 오랑(Oran) 전체가 격리되자 주민들은 혼란에 빠지면서 매일 감염, 고통, 죽음 등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격인 의사 리유(Rieux)와 타루(Tarrou)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위생과 청결과 상호 신뢰를 강조하면서 끝까지 페스트 전염병과

싸워나갑니다. 그러다가 도시를 전멸시킬 것만 같았던 전염병의 세력이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위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해 삼월에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이 한해가 다 되면서 전염병의 추세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백신 공급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시기에 여기저기서 그동안 묶어놓았던 제제조치들을 푼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잘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들이 있지요.

문제는 전염병이 사라지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된다면 교회들은 그동안 닫히고 무너졌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열고 세워야 할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예배가 축소되고 대면 모임들이 폐지되고 교인들 간의 교제를 위한 친교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감사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에 참석도 못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거의 한 해 동안 교회나 교인들과의 관계가 없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립되어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 익숙해져버린 사람은 자유로운 바깥 세계로의 통로가 열려도 나오려고 하지 않지요. 어두운 무덤 속에서 형곶으로 둘러 쌓여있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소리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요한복음 11:43)”

■ 교회에는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새롭게 시작해야 할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교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때를 준비해야 하겠지요.

수필



커피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 오마르는 기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가 모카에서 쫓겨나 사막에 있는 동굴로 유배되었던 때였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근처에 있던 관목에 열린 열매를 따서 씹어 보니 대단히 쫄았다. 맛이 달라지는가 보려고 볶았더니 아주 단단해져 버리는 것이었다. 볶은 열매를 물렁하게 만들려고 삶자, 뜻 밖에 물이 갈색으로 변한다. 향기로운 갈색 물이 몸에 활력을 되찾아 주고, 며칠 동안 버틸 수도 있게 해주었다. 15세기의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모카에 알려지고, 오마르는 이내 소환되어 훗날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아랍 예멘 공화국 남부의 항구 도시 모카는 커피를 교역하는 중요한 항구가 되었고, 모카 커피는 원래 모카산의 상급 커피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커피는 처음에 이슬람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모슬렘의 라마단 축제 동안에, 낮의 단식과 밤에 깨어 있는 데 도움을 주어 신앙 생활과 직접 연관되었던 것이다. 수피교도들이 신을 찬양하는 데에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어 주었다.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야간 예배를 보거나, 영적 도취경에 빠지기 위해 사용되었다. 음료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커피는 차차 주변의 여러 나라로 퍼지기 시작한다.

천오백 년대에는 커피의 자극적인 작용 때문에 한동안 신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지만, 음료의 특성 중에 피로나 권태를 없애 주고 활력과 원기를 되찾아 주는 효험이 인정되어 사용 금지는 얼마 가지 않아 해제되었다. 180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나라에서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하고, 커피의 사용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가 되어 버린 커피. 수많은 애호가들의 취향에 맞추느라 커피콩을 가지가지로 볶는가 하면, 끓이는 방법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커피나무는 중남미, 남아시아, 태평양의 일부 섬 등 열대 지방에서 재배된다. 습기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발 약 1,000미터의

질이 좋은 토양에서 재배된 것일수록 맛과 향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커피차를 파는 가게 중에는 ‘농장에서 컵까지’라는 선전 표어를 붙여 놓은 곳도 있다. 적당한 고도와 상급 토양에서 생산되어 품질이 우수한 커피콩을 구하여 손님을 접대하려는 목적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그에 상응한 가격을 받기를 원하는 농부들과 생산품을 직거래하는 가게다. 생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불하여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자는 뜻에서 공정 거래 기구가 생기기도 했다.

커피는 대단한 보편성을 띤 음료여서 커피숍에는 사람이 들끓는다. 사업상의 만나는 장소나 첫 데이트 장소로도 알맞게 꾸며 놓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들고 와 커피를 마시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요즘에는 어떤 고장에든지 가서 그 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빨리 알아보려면 커피숍에 들어가 보라는 말까지 생겼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커피를 가미하여 마시기 시작했다. 설탕, 우유, 크림, 증류주 등을 넣어 새로운 맛을 냈던 것이다. 라떼나 카푸치노처럼 설탕이 들어간 커피가 한때 커피 시장을 바꿔 놓기도 했다. 까맣게 볶은 커피콩에 고압의 증기를 쏘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든 쓴 맛이 강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부른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커피에 뜨거운 우유를 탄 것인데, 종종 계피가루를 넣고 그 위에 거품이 있는 크림을 얹어 마시기도 한다.

집에 커피 끓이는 기계를 장치해 두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는 로버트가 주말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를 불러 함께 커피를 즐긴다. 그 기계에는 우유를 덜혀 주면서 동시에 거품을 일으키는 장치가 달려 있다. 거품이 인 우유와 감미로운 증류주가 커피의 쓴 맛을

11페이지로 계속

칼럼

코로나 하프타임에서

2021년 3월 2일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2월 27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한 비율은 인구 100명당 이스라엘이 92.63명, 아랍에미리트 60.82명, 영국 30.77명에 이어서 미국은 22명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3월 3일 기준으로 5명 중의 1명이 코로나 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지난 1년 동안 끔찍했던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축구에 비유한다면, 전반전에 있던 후반전에 들어서 있던 아니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하프타임에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현재 상황은 코로나 하프타임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애굽의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가 인생의 전반전이었고 바로를 만나고 나서 총리가 된 것이 인생의 후반전이었고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감옥에서의 2년의 기간이 하프타임일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 요셉은 지독히도 운이 없는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온 이집에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서 그렇게 성실히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무려 2년동안 갇혀 정말 세상에서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2년이나 감옥에 갇힐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감옥에서의 2년은 그의 인생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주신 소중한 하프타임으로 여긴다면 이 소중한 하프타임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밥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Half-Time)이라는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밥 버포드는 인생의 전반부는 기업가로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하프타임’이라는 기관을 조직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삶에서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조언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유익합니다. 그는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전반전은 소란스럽고 분부하고 열광적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하프타임 동안에 분명히 해야 할 7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묻습니다. 둘째, 진정한 성공은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가? 셋째, 우리가 평생 품을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손해는 축복의 밑 걸음입니다. 다섯째,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섯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곱째, 섬김이 최고의 영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인생의 후반부는 참으로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 인생에 주신 하프타임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2년간의 감옥생활의 하프타임에서 요셉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첫째, 요셉은 감옥의 하프타임에서,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한때는 요셉에게 큰 도움이 된 보디발 장군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는 도무지 억울하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배운 가장 확실한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굳은 믿음입니다. 둘째, 요셉이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배운 것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요셉 인생의 전반부와 하프타임은 철저하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그냥 시간만 지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는 성실로 살아간 것이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풀어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놓고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갈릴리 장로교회는 코로나 하프타임의 기간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 뉴멕시코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말씀 사경회와 명강사 초청 특강과 가정을 세우는 크리스천 홈 세미나를 준비하여 우리 지역의 한인들을 초청합니다. 2021년 고난주간 기간인 3월 29일(월) 오후 8시부터 4월 2일(금) 오후 8시까지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의 주제로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사명의 2021년 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며 우리 지역의 한인들을 초청합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이후 4월 8일(목)과 15일(목) 오후 8시에는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의 상담학 교수로 미주 한인과 한인가정의 회복을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이종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부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Pain Cycle이 아닌 Peace Cycle 만들기)를 주제로 친밀하고 회복되는 부부 관계를 다루고, 이어서 4월 22일(목), 4월 29일(목), 5월 6일(목) 오후 8시는 갈릴리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김민순 목사가 “가정을 세우는 크리스천 홈”의 주제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합니다.

코로나 하프타임 기간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믿음도 회복되며, 명강사 이종천 교수님의 초청 세미나로 부부 관계도 회복되며, 가정을 세우는 크리스천 홈 세미나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24페이지의 안내 포스터를 참조하시어 온라인 줌 (ID: 482 151 0779, Passcode: 220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참여 문의는 김민순 목사(505-975-0322, mskim31@gmail.com)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커 피> 9페이지에서 계속

없애 주어 마시기에 아주 좋다. 거기다 꿀을 넣거나 계피가루를 뿌려 그윽한 향기를 즐기기도 한다.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방에서 딴 정제하지 않은 꿀이 증상을 완화한다.

로버트의 집에는 커피에 타는 다섯 가지의 알코올 음료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 Baileys 17%, 아이리시
- O’Connery’s Cream Liqueur 17%, 아이리시
- Rum Chata 13.75%, 카리브 해
- Amaretto Liqueur 28%, 이탈리아
- Kahlua Rum and Coffee Liqueur 20%, 멕시코

모두가 커피에 섞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감미롭고 향기로운 알코올이다. 라벨에 진품 아이리시 크림이라던가, 신선한 목장 우유로 만든 크림이 들어 있다는 글귀가 씌어 있다. 켈루어의 라벨에는, “1936년에 멕시코의 주요 항구 베라 크루스에서 처음으로 커피에다 럼을 섞어 마셨는데, 우리는 그게 맛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으니 당신도 해 보시오.”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우유와 섞어 거품을 낸 다음, 갓 끓인 커피에 부어 마신다. 추운 겨울날 아침의 그 맛은 무엇에도 비할 바 없다. 커피를 날마다 마시면 탈이 나고는 하던 내 뱃속이 양생법을 꾸준히 실천한 나머지 좋아져서, 이제는 하루라도 거르면 무언가를 놓친 느낌이 든다. 한없이 흐뭇해져서 천천히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세상 형편도 얘기하며, 다음 한 주의 계획을 서로 나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썩 보람 있는 날이 되고는 한다. ■

입장바꿔 생각하자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입장바꿔 생각하자’

이것은 년 전에 방영되었던 TV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에 나오는 그 왕가네 가훈이었다. 그 가훈은 이 집안을 다스리는 중책을 띠고 사철 불침번을 서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재미스런 그 집안 식구들 이름은 또 어떨까. 딸들 이름은 호박이, 수박이. 큰사위 이름은 고민중, 작은사위는 허세달... ‘입장바꿔 생각하자’를 써 걸어 놓으시고 한껏 이 집안의 질서를 세우신 가장께서는 작은 시골 중학교 교감 선생님, 그 사모님 합자는 ‘양금’ 이셨으니, 교감 선생님의 굵다란 붓끝은 아마도 그 식구들 이름만큼이나 다양하게 시끌시끌한 집안을 한마디로 탄소리 못 하게 다스려야 할 입장에 계신 가장의 웅변이자 호소이었지 싶다.

성경에 이르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세상살이에 시달리며 부대끼는 상황에 교감 선생님인들 어찌 일일이 가름하여 소통시킬 수 있었으랴!

범세계적으로 1600번 이상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일명 장발판 이라고도 잘 알려진 이 원작이 출판될 때의 에피소드 또한 재미있다. 빅토르 위고 (Victor Marie Hugo)가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을 탈고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아무 소식이 없이 함흥차사여서 답답했다.

기다리다 못해 위고는 출판사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

오랜 고투로 마무리된 내 원고에 도대체 당신의 반응은 무엇이나는 단 한 개의 질문 부호뿐이었다. 얼마 후 위고는 출판사로부터 답장을 받게 되었는데, “!”

설명이 필요 없이 대단히 좋다는 때에 쓰는 감탄의 부호였다.

소통이 된 것이다. 상당한 수준급의 소통이었다.

어떤 땐 말이 많아서 불편해지고 어색해 지는 경우도 많은데... 때론 이것도 괜찮은 소통법이 되겠구나 싶다. 이 뮤지컬은 1600번 이상 공연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다. 빵 한 덩이 훔친 사건이 세상을 돌며 소리를 질러댄다. 질문 좀 들어 보라는 것이다. 성공과 성장만을 부르짖느라 한참이나 뒤로 밀려나 있었던 삶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부메랑이 되어 양심이 사면받지 못하던 가슴들과 맞닥뜨리더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쉽사리 제한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 그래도 내 안에 여태까지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에 눈물이 터지는... ? 뭐 그런 거다.

요즘 팬데믹에 걸리면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증상이 힘든 숨쉬기라던데 먹고 살아야 한다는 애매한 현실에 묶였던 가슴을 깨워 제대로 된 숨쉬기까지에는 때로 이런 부메랑이 한몫을 하는구나 싶다.

목사 남편과 사느라 주변머리 없는 나는 좀 영육? 간에 바쁘긴 했다. 멀쩡한 학력과 정신을 가지고 멀쩡한 직장도 마다하고 없고 없고 또 없고 가 주제곡인 고아원까지. 얼떨결에 오직 남편의 결정에 따라 살아야만 했으니 내게는 과연 험레벌떡 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항간에서 말하는 ‘고생’이라는 것인 줄은 나는 전혀 몰랐다. 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다.

아직 내게 소개되지 않은 게 많은 세상이었다. 게다가 알랑할지라도 나름대로 우리 한국인이 진 신앙의 빛을 갠다는 대제를 걸고 춤병엿을 때를 생각하면 분명히 식자는 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급하게 현장마다 나타나셔야 했던가 싶다. 부지런히 그 영어 회중 목회에 정신이 빠져 있었을 때에 동서양 이중 바람을 숨 쉬어야 했던 아이들과의 괴리는 또 어땠던가. 여태까지도 짠 하다. 아이들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한다. 그야말로 빅토르 위고의 “?”가 수월찮게 등장하곤 했었다.

VOA 방송녹취/영화

한인 이민 가정 다룬 영화 '미나리'

VOA Korea
안소영 기자

미국에서 한인 2세 감독이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화 '미나리'가 화제입니다. 미국에 이민온 한인 가정의 삶을 그린 영화로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낯선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도 특별한 영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화 '미나리' Trailer] “내가 했던 말 기억나?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말.”

1980년대에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희망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온 젊은 한인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를 만든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삭 정 감독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가정의 아칸소 주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해 힘겹게 살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14페이지로 계속



그렇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철들게 해 준 것만은 사실이다. 많이 넘어진 자가 잘 일어날 줄도 안다던가. 이제는 좀 더딜지라도 더 소중한 것을 분별해 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종종 “!”로 응원을 한다. 요즘 흠뻑 쏟아지는 봄비에 가슴 펴는 대지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많던 구차한 해설들을 이제 모두 이유무론, 파기하고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라도 무언도 말이라 하니 여전히 우리의 “?” “!” 식 대화는 진행 중이지 않은가! 과연 우리의 삶은 영원한 그 “?” “!”의 진행형인가 보다.

해를 넘기고도 사라지지 않는 팬데믹으로 2021년 새해가 왔어도 그냥 지루하기만 한데. 이럴 때 위고의 소통법 “?” “!”으로, 또는 교감 선생님 덕의 가훈 “입장바뀌 생각하자”로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본다. 감히!
하나님께선 오래전부터 목이 곧고 천방지축인 그의

백성들에게 절절하신 편지를 보내셨다.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생이 많을 테니 내가 일러주는 내 이 말을 따르면 살리라 하셨건만.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또 사람이면 차마 못 할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도, 땅들과 바다가 분통을 터뜨려도 껌싸게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엉뚱하기만 한 우리들을 불철주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 때론 흑사병으로 지독한 독감으로, 때로는 메르스, 쉘스같은, 때로는 광풍으로, 폭우로, 이번에는 코비드-19이라는 고약한 바이러스를 급파하시어 이러쿵 저러쿵 변명할 여지 없는 빠른 답신을 촉구하시는 것인가.

“?”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와 소통이 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살리라. 그만큼!
“!”
■

영화 ‘미나리’ 13페이지에서 계속

채소밭을 일궈 성공하겠다는 아버지를 따라 가족들은 이동식 주택에서 좌충우돌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린 손주들과 뒤늦게 미국에 건너온 외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담은 장면들은 정겹습니다.

[영화 ‘미나리’ Trailer] “Oh, my pretty boy!”
“I am not pretty, I am handsome.”

부부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만 곧 또 다른 난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나리’는 영화 속에서 어린 남매의 할머니가 키우는 채소로,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정 감독은 실제로 자신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야채를 키웠고 그 가운데 가장 잘 자랐던 것이 미나리였으며, 자신에게는 가족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감독은 최근 ‘링컨 센터 필름’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내 이민 가정의 겪는 세대, 문화, 소통의 문제를 조명해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 감독] “I started to writing down a lot of memories, and it came to like about 80 memories.”

80여 개의 추억들이 떠올랐고 할머니의 실수로 집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들을 영화에 그대로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영화계에서는 ‘미나리’가 단지 한인 뿐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본보기가 되는 영화라며, 이보다 더 미국적인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가족의 친밀한 풍경을 따스하고 잔잔하게 그려낸 영화라고 소개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절묘한 부드러움과 담백한 아름다움으로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가족 드라마를 살린 최고의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낯선 땅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도 영화 ‘미나리’는 특별해 보입니다.

아직 영화를 직접 접하지는 못했지만 미지의 세계였던 미국에서의 자신의 정착 과정을 영화에서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캘리포니아 거주 탈북 남성] “북한에 있으면서 몰래 듣고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본 곳이 미국이었고, 그런 세상에 와서 살아가고 있고, 노력한 만큼 차이는 있겠지만 그 대가가 따라오니까요.”

시카고에 정착한 탈북민 김마태 씨는 남북한 사람 모두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으며, 이 영화 속에서 미국 사회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미국은 축복 받은 땅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마태 씨] “미국이라는 곳에서 물론 인종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 선진국으로서 이민 온 사람들을 다 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울 수 있구나...”

영화 ‘미나리’는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 영화협회 등 다수의 기관과 영화제에서 수상했습니다.

지난 3일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가 주관하는 제78회 골든글로브상의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4일엔 미국배우조합상(SAG)의 앙상블상,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감독이 만들고 미국 제작사가 제작했으며, 주연 배우 5명 가운데 3명이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사 절반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라는 이유로 골든글로브 영화상에서 작품상 대신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 남성은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손길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제가 미국에 학생 비자를 받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왔을 때 제 주머니에는 단지 500불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하늘이 노래지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고 무슨 망상에 휩쓸려 시작했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지요. 그때 학생 비자를 받았던 대학은 뉴욕 근방에 있는 Stevens Institute Technology 였습니다. 가을 학기부터 등록하기로 하고 San Francisco를 거쳐 LA Airport에 도착했는데 미국에 제가 아는 분은 딱 2분, Don Livengood 하고 유복형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Don은 뉴욕으로 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 집에 방이 있으니까 일주일 쉬고 가라고 권했지요. Don은 US army 군인으로 의정부 부근에서 근무했는데 제 작은 형님이 역시 의정부 근방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Don을 가끔 만나면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Don에게 영어로 편지를 써 보내기 시작하며 Pen Pal 이 되었습니다. Don 은 제 편지를 받으면 즉시 제 영어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제 편지에다 수정해서 보내 주곤 했습니다. Don 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Hugh 회사에서 Electrical engineer로 일했고 제대하면 다시 그 회사로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서울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중학생 때 Don을 보았을 뿐이므로 많이 모습이 달라져서 알아보기가 힘들 줄 알았지요. 그래서 LA 공항에 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두리번 두리번 하며 나오는데 어떤 미국분과 어머니가 큰 카드보드 판에 “Welcome, Joon-Ho Kim” 쓴 것을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반갑게 저를 대해 주셨고 Don 어머니 집에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 댁에 있는 동안에 한국 아현성결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수고했던 유복형 선생님 한 테 전화를 하고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는데 일주일 후에 뉴욕으로 떠난다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뉴욕은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추운 곳인데 그곳에 가면 더 힘들 것 같으니 LA 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찾아보라고 강권했고 그때 임동선 목사님

댁 위 층에 방도 많으니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 선생님의 권고를 따라 임 목사님 댁에서 기거하며 다시 대학원 원서를 내서 USC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며 모든 외국 학생들이 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LA down town 근방에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인이 제가 공과 대학을 졸업했다니까 LA airport 근방에 많은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LA down town에서 LA 비행장 근처를 여기저기 찾아 헤맸지요. 그러던 중에 TRW Semiconductor 라는 회사 간판을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job을 찾는다며 제 이력서를 receptionist에게 주었더니 그분이 누구와 통화 했고 Department manager가 나왔습니다. Wayne Shaw 는 자기 사무실로 저를 안내하고 제 이력서를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개발했느냐 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그 다음 질문은 Microwave Theory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과목을 들었다고 했더니 몇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가 낸 proposal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TRW Semiconductor에서 2GHz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Amplifier 에 사용 할 수 있는지 2GHz strip line amplifier 개발 연구 proposal을 제출하고 몇 달 동안 아무리 해 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를 설명했더니 Wayne 이 말하기를 “Hey Joon-Ho, can you start work tomorrow?” 제 대답은 “No!”, “Why not? , “Because I walked from near LA down town to come here.” 내 대답을 듣고, “What?, Did you walk?” Wayne은 몇 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Wayne 은 TRW PA system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This is Wayne Shaw. I want to hire one engineer but he does not have car yet. Any one lives near LA down town, please come to my office."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이렇게 해 보아도 안 되고 저렇게 해 보아도 안 된다고 큰 두통거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중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은 임동선 목사님 댁에서 3 block 서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출퇴근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 engineering job 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Wayne이 설계한 2 GHz strip line amplifier 를 검사해 보니까 Wayne 이 strip line 특성을 잘 모르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서 check 했더니 회로가 잘 동작 하였습니다. 급하게 Wayne 사무실로 가서 내가 설계한 회로가 동작하는 것 같으니까 와서 검사해 보라고 했더니 그래 하면서 실험실로 달려 와서 검사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말하기를 "Joon-Ho, You save my neck" 하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준호가 이 골칫덩어리를 해결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후 부터는 직원들이 저를 아주 다르게 대해 주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break time에 커피를 마시겠느냐고 타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직원은 오늘 점심을 내가 살 테니까 함께 점심 먹으러 나가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USC 대학원에 가을 학기 등록을 해야 할 때가 바작바작 다가오는데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Wayne한테 제 문제점을 실토했습니다. "That is good. You register USC graduate school. When you get your class grade B or higher, TRW pay your tuition. Also your classes end before 3 PM, come to work until 7 PM and you work 8 hours on Saturday. Then I will sign you work 40 hours each week". I could not believe what he said. WOW!!! 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 나이까!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USC graduate courses 을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등록하는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모든 외국 학생들은 첫 학기에는 English 101을 필수 과목으로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금이 달랑달랑하는데 영어까지 택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느껴 Foreign student advisor

에게 가서 영어를 안 들을 수 없겠느냐고 애걸했더니 advisor는 한국 어느 대학에서 왔느냐고 해서 Seoul National University 라고 했더니 저는 영어를 안 들어도 된다고 sign 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목만을 등록했고 또 다시 advisor에게 가서 고맙다고 인사 드리고 sign 해 준 이유를 물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분의 말이 그전에 왔던 한국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영어과목 면제를 애걸해서 OK 해 주었더니 그 학생의 성적이 straight A 학점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천만 다행으로 제가 덕을 봤습니다. 첫 학기를 마치고 두 번째 학기 등록하려고 했더니 제 등록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Advisor 에게 가서 제 사정을 알렸더니 그것 참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둘이 함 께 가서 분명히 제가 공부했다고 말하고 혹시 last name sorting 을 잘못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했더니 찾아냈는데 제 last name 이 Ho Kim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부터 는 제 full name을 Joon-Ho Kim 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USC에서 공부하는 동안 등록금이 모자라서 Don한테 5,000불을 꾸어 썼습니다. 물론 나중에 Research Assistant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USC에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IEEE 잡지에 연구 논문 Abstract 기사를 내고 IEEE show에 가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Schenectady New York 에 있는 General Electric Research Center의 한 Department manager 와 staff member 들이 그 show에 와서 제가 논문 발표 하는 것을 듣고 저를 그들 연구소로 초청을 했었지요. 그리고 저를 hire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뉴욕주 Schenectady에 있는 GE Research Center로 이사하게 되어 Albuquerque 에서 자리 잡고 사는 이경화 동창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축하 한다며 가는 길에 알버커키에 들리라고 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저기 관광을 시켜 주고는 CVI Laser 회사 사장님 Dr. Hahn을 소개 시켜 주었습니다. Dr. Hahn 은 제가 USC 에서 학위를 했다가 교수 이름을 말하면서 그분이 CVI Laser high power Yag laser mirror를 여러 개 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 과목을 택했다고 하니 신이 나서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알버커키를 떠나서 Schenectady 에 가서 CVI Laser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GE

<20페이지로 계속>

영어상식 시리즈



영어이야기 13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우리가 살다보면, 마음의 고통을 받는 수도 있고, 몸이 아파 누워있게 되는 경우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여 의사를 찾아가면, 안도감(relief) 뿐만 아니라 두려움 (fear)도 동시에 갖게 되는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치과방문(regular dental office visit)도 예외는 아닙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regularly or periodically) cleaning을 하기위해 치과를 방문해도, 혹시 이가 찢어 때워야(filling) 되지않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Cleaning은 대개 dental hygienist가 하는데, hygiene(하이진)은 위생(학)을 뜻합니다. 불어(French)인 hygi□ne(이지엔)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원은 그리스어의 hugieinos에서 나온 말로 healthful이란 뜻입니다. 하수구(sewage)나 화장실, 식당등 공공위생에 관한 위생은 sanitation을 사용합니다. 손을 씻는다는가, 이를 닦고 손톱을 깎고, 샤워를 하는등, 개인의 위생에 관해 사용할때에는 hygiene을 사용합니다. 남자와 달리 생리구조가 다른 여자들은 몸 청결에 신경을 써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게에 가면, feminine product 라고 해서 여성전용 물건을 파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hygiene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feminine은 여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여성의, 여자의” 뜻으로, feminine tenderness는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여성운동가(여성해방론자)는 feminist로 부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남성적인것을 나타내는 “남성의, 남자의” 뜻으로 masculine을 사용합니다. 고양이의, 고양이과의 뜻으로는 feline(휠라인)이 사용되는데, 호랑이 사자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늑대나 여우등 개족속에 속하는 “개의, 개와같은”의 뜻으로는 canine(케이나인)이 사용됩니다. 경찰은 개를 훈련시켜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거나, 마약을 탐지하는 부서를 K9 UNIT로 부르는데, K9은 canine과 발음이 같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경찰차에 K9UNIT라고 쓰여져있는 차량은 경찰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canine은 라틴어의 개를 뜻하는 caninus, canis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치과로 돌아와서, 치과 의사를 나타내는 dentist의 “dent”는 힘을주어 표면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기는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dent”는 잇빨(tooth)을 뜻하기도 합니다. 치과는 dental office, 틀니는 denture, 틀니 만들때 잇빨 본뜨는것은 impression이라고 합니다. 새차를 샀는데, 옆의 차가 문을 열면서 주의하지 않고, 새차를 살짝 찍으면, dent가 생겨, 속상해지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긁힌것은 scratch라고 합니다. 모든 일은 긁는것부터 시작하므로, “He started a business from scratch after serving in the Reagan administration.” (그는 레건행정부에서 일한후 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시작했습니다). 치과 의사(dentist)가 치료하기 위해 혀를 내밀라고 할때는 “stick out” 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도 가만히 보면, “tooth” 라는 소리글자가 있는데도, “dent-” 또는 “denti-” (tooth를 뜻하는 라틴어는 dens 또는 dent) 라는 뜻글자를 써서 dentist 등으로 쓰는것을 보면, 우리말에 이(잇빨) 라는 소리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아(齒牙)니 치과(齒科)처럼 한자어를 쓰는것과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말로는 치과에 간다고 하지만, 영어로 말할때에는 치과 의사(dentist)한테 간다고 합니다. 치과에서 이를 뽑거나 (extraction은 정식용어이고, 말로 할때는 pull out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찢은 부분을 때울때 (filling이라고 함: 충치는 “a decayed tooth”), 부분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사기를 입안에 넣을때, 입을 벌리되 떨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주사는 아직도 제일 무서운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참을수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Shots seem

to still be our biggest fear and almost unbearable to some.) “flu shot (독감 예방주사)”에서 보듯이 주사한대는 (맞는 것이던, 놓는 것이던간에) 회화할때는 “injection” 보다는 “shot” 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쏘다”는 뜻의 “shoot”의 과거, 과거분사가 “shot” 인 데, 명사로 쓰이는 shot은 총의 발사, (영화)촬영, 술 한잔등 뜻이 많습니다. “He was shot. (그는 총을 맞았다).” 다른 예로는, “Give it your best shot” (최선을 다 하십시오), “big shot”은 속어로 거물급, 즉 VIP (Very Important Person)를 나타냅니다. 소주나 whiskey마실때 사용하는, 한잔에 들이킬수 있는 크기의 유리잔 (기념품가게에 많이 있음)을 “shot glass”라고 합니다. “shot put”은 투포환 (육상경기중의 하나), “long shot”은 멀리있는 과녁은 맞추기 힘들므로 “승산이 없는것”을 뜻합니다. 뽕뽕뽕친 휴지를 휴지통에 던졌을때, 그대로 쪽 들어갔을때, “good shot”이라고 추켜(?) 세울 수 있으며, 잘찍은 사진을 보고도 “good shot”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digital camera로 사진을 찍을때, button을 누르기 전에, 몸을 움직여 가면서 잘나오도록 구도를 잡는데, 이때도 “shot”을 써서 표현할수 있습니다. “I’m trying to frame a good shot.” (잘 찍으려고 구도를 잡는중이야). 독사진이 아닌 여러사람과 같이 찍은 단체사진은 “group shot” 또는 “group picture”라고 하면 됩니다. 사진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shot” 외에도, “picture” 또는 “photograph or photo”가 있습니다. 사진기도 발전을 거듭하여, digital camera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들여다 볼때, 어떤때는 눈을 감은 (또는 반쯤 감은) 경우에 찍힌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10% 가량을 눈을 깜박이는데 허비한다고 합니다. 보통사람의 깜박임(blink rate)은 일분에 20번이고, 한번 깜박이는데 평균 0.25초가 걸립니다. 우리가 남의 얼굴을 주시할때, 일부러 유심히 보기전에는 깜박이는데(blinking)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기거나 반쯤 감긴 사진이 가끔 나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순간(moment)이 잡힌 것입니다.

주사(注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잇몸을 찌를때의 주사는, 사실은 주사 자체가 아픈것이 아닙니다. 잇몸(gum)을 찌르는 바늘의 깊이와

주사를 놓는 속도(injection rate)에 따라 좀 아프기도 하고, 별로 아픈것 같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치과의사의 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마취주사 (anesthesia)를 놓기전에, 찌르는 순간 아프지 말라고, 향내나는 topical anesthesia를 잇몸에 바르고 찌르기 때문에, 천천히 일정속도로만 주사를 놓는다면, 아픔을 별로 느끼지 않는 그야말로 pain-free(아픔 없는) 주사가 될것입니다. 주사놓기 전에 잇몸에 바르는 topical anesthesia는 약 2 mm 정도 깊이로 잇몸을 마취시키기 때문에 의사가 바늘을 이 깊이 까지만 넣고 일정속도(steady)로 천천히 주사를 놓으면,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인 “topical”은 전신(全身)이 아닌 국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topical anesthesia는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local)마취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치료일 경우엔, 주사대신 잇몸에 마취제를 바르기만 하기도 합니다. 처음 주사 바늘이 들어갈때, 따끔하게 아픈것을 “pinch”라고 합니다. 환자의 주의를 판데로 돌리기위해 의사가 주사놓기전 입술을 문지르기도 합니다. Laser로 치료하면, 주사로 인한 겁은 없어질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취주사를 놓고 마취가 되었는지 환자에게 물어볼때, “numb numb?”하고 물어 봅니다. 입을 벌리고 다무는 것은 “open, close”, 혀 내밀라고 할때는 “stick out”, 딱딱씹고 갈으라고 할때는 “tap tap and grind”, 찬 음료수 마실때 이가 시릴때는 “sensitive”라고 표현합니다. 찌르듯이 아픈것은 “sharp pain”이라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몸이 아플때, 영어로 제대로 표현이 되지를 않아 애먹는 경우가 필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욱썬욱썬 쑤시다, 배가 살살 아프다, 뱃속이 허하다, 힘이 쪽 빠지다, 옆구리가 켕긴다, 눈이 침침하다” 등등, 이런말이 영어로 제때 잘튀어나오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치과의술은 “dentistry”입니다.

Thank you. ■

수필

서랍 정리

조혜란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집사



유경이가 좋아하는 육개장도 끓이고 시금치나물도 무치고 생선전도 부치고 얇게 저민 소고기를 로스구이하여 곁들일 버섯이랑 브로콜리도 준비하며 분주한 저녁 시간을 보낸다. 2년 만에 딸이 1달 예정으로 집에 오는 날이다. 가끔 잠깐잠깐 다녀갔지만 1달이나 다녀가기는 처음이라 큰 설렘으로 맞이하는 저녁이다. 오기 전부터 이번에는 와서 엄마 집을 완전히 뒤집어 정리를 해 주겠다고 버르고 있었지만, 전처럼 딸에게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대충 정리도 해 두었다.

Covid-19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아빠 수술 후, 엄마의 어지럼증 후유증으로 곁에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 애태우던 딸이 computer만 있으면 이곳에서도 Zoom으로 한국, 미국을 오가며 수업을 할 수 있어 오게 되었다. 미리 우리가 서로 껴안을 수도 없고 뺨에 입맞춤도 할 수 없음을 알렸다. 딸도 행여 엄마, 아빠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마스크는 물론 손 소독제, spray 등으로 비행기 좌석 주변도 수시로 소독하며 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쓴 채로 대화도 나누면서 기막히게 웃픈 시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어이없는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엌 pantry의 물건들이 온 부엌과 dining room에 몽땅 나와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예정한 대로 본격적으로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먼저 버릴 물건, 기부할 물건, 저장할 물건들을 나누기로 했다. 유통 기한이 조금이라도 지났으면 모두 버리자고 해서 종류에 따라 한, 두 달은 좀 봐달라고 졸랐다. 낡은 것, 2개 이상 있는 것은 버리자 안된다 실랑이를 해가며, 몰래 가져다 감추기도 하며 하루 종일 pantry에서 나온 식품이며 집기들을 정리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대단하게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 있었다. 내가 사 두고도 잊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고 모르고 또 구입해서 몇 개씩 되고 날짜가 지난 것

들은 아깝게 버려야 했다. 그리고 다시 저장해야 하는 것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용기를 구입하러 마켓에 갔다. 엄마인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 그냥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고 딸은 용기를 통일해서 예쁘게 정리하자며 많은 사진을 보여 주었다. 정리된 pantry design 사진의 모습들이었다. 정말 근사한 모습에 나도 설득되어 돈 조금 들이고 품나는 바구니, 상자 label들을 사 들고 돌아왔다.

나물류, 버섯류, baking 종류, 미역 종류, 곡식류, 한국 국수, 이태리 pasta 종류, 월남 국수 종류 하나하나 박스를 만들어 이름표도 달고 제 자리를 찾아갔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는 늦은 밤까지 정리는 계속되었다. 몸도 힘들고 일하는 중간중간 버릴까, 남 줄까, 둘까 고민도 하고 갈등했지만, 정리를 마치고 나니 공간의 여유가 생기고 자꾸만 열어보고, 둘러보고 싶을 정도로 흐뭇하고, 애써 수고해 준 딸이 너무 고마웠다. 정리 중 before / after 촬영도 해서 부끄럽기 까지 했다. 긴 비행시간으로 피곤도 했으련만 내 엄마 집이니 알뜰살뜰 살펴주는 마음이 기특했다. 어느새 자라 엄마보다 더 지혜롭게 규모 있게 정리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느껴졌다. 정리에 관한 책도 읽고, 많은 동영상도 보았다.

그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부엌 서랍들, 화장대 서랍, 싱크대 밑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니 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반성도 하고, 물건들이 줄을 지어 바구니와 상자에 들어가니 부족했던 공간들이 넓어지고 필요한 물품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쉽게 찾을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될 것이다. 치약도 칫솔도 비누도 엄청나게 쌓아 놓았음을 깨달았다. 화장품 샘플들도 종류별로 파우치에 넣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놓았다.

이것들을 다 쓸 때까지 사지 않기로 하자. 요긴하게 쓸 수 있을 때 사람들과 나누자. 사라 가기 전 가지고

있는 inventory를 확인하고 가자. 급하다고 제자리에 안 넣고 여기저기 놓지 말자. 약속하고 확인하고 다짐했다. 거꾸로 요즘 따라 딸의 잔소리가 늘어가는 것 같다. 물 마셔라, 사람 조심해라, 식기세척기 날마다 이용해라. 딸은 또 함께 지내면서 엄마 아빠가 불편하게 사는 것은 어느새 물품을 구입하여 편리하게 바꿔 주었다 (door holder, 핸드폰 거치대, 회전식 화장품 정리 대 등).

서랍 정리를 통해 우리 삶에서 꺼안고 살았던 많은 잡동사니를 버리고 제 자리를 찾아주니 마음도 널찍한 공간이 생긴 듯 여유가 생겼다. 많은 교훈도 얻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꼭 살림살이며 옷장 서랍들을 정리한다는 권사님이 계시다. 행여 급작스럽게 떠나게 될 때 자녀들에게 큰 짐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욕심 많다 욕먹지 않으려고... 지저분하다...정신없이 살고 있다고 흉잡히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살았던 손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를 긴 여행을 위해 이제 나도 손에 꼭 쥐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려 한다. 덜어내고 퍼내어 가벼워지고 싶다. 가지런히 줄지어 예쁘게 정돈 되어 있는 서랍을 보며 삶도 여유롭게, 마음도 넉넉하게 살랑살랑 살아보려 한다.

오늘도 서랍을 열어본다. ■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손길 <16페이지에서 계속>

연구소에서 일을 했지요. 그러든 중 어느 날 Dr. Hahn 이 저에게 전화로 지금 뉴욕에서 Laser Show 가 있어서 여기 출장 왔는데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해서 Schenectady hotel lobby에서 만났지요. 대화 내용은 제가 CVI로 오면 stock을 주고 다른 혜택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부 터는 심신 치 않게 전화해서 “내려오기로 결정 했어요? 빨리 끝내고 내려와요!” 그런데 GE 연구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구소와 다릅니다. 마치 넓고 아름다운 휴양지라 고나 할까요, 연구소 안에 Golf course 와 Tennis court 가 있고 산책길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마는 결국은 CVI Laser 로 오기로 마음을 결정했지요.

제가 그 연구소에 입사했을 때 많은 연구 업적들을 알려 주었는데 지금도 생각 나는 것은 인조 Diamond 개발 연구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결혼할 때 통상적으로 금가락지나 Diamond ring을 주고받지 않아요! Natural diamond를 채굴하는 남아프리카 광산을 쥐고 흔드는 업자들이 Natural Diamond와 인조 Diamond의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기대에 어긋났다고 합니다. 제가 CVI Laser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Vacuum coating unit를 operation 하며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변수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왜 특허를 안 내느냐고 묻는 자들이 있지만, 특허를 내면 그 즉시 비밀을 공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희한한 어이디어를 알려 주어서 제 개발품을 성사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새로 개발된 것들 몇 가지를 언급하고 저의 긴 여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이 많은 축복과 은혜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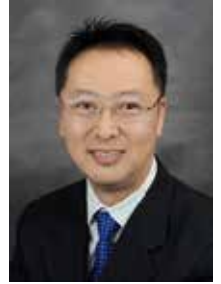
1. TFPK (Thin Film Polarizer Kim) Broadband low dispersion beam splitter
2. TFK2 (UV Thin Film Polarizer Kim)
3. PBSK (High Energy Broadband Polarizing Beam splitter Kim) Extinction ratio 10000:1
4. Glan laser 90 degree Escape Window Polarizer (This was fabricated for IBM Research Lab)
5. MWPS (Single order Mica Wave plate)
6. NPPB (Non Polarizing Plate Beam splitter) For any single wavelength and any reflection
7. NPCB (Non Polarizing cube Beam splitter)
8. Double V, Triple V, 4 Harmonic V Antireflection Coating
9. SBBAR (Super Broadband AR Coating
10. High Power Double Reflectance mirror 0 or 45 degree 1064/532 or 532/355 nm
11. Durable Protected Silver mirror
12. Creation of a partial reflectance curve (I call the football curve) to show what reflectance at 0 degree required to make reflectance 45 degree S or P polarization. This special curve was produced using more than 10 years of collecting many 100 partial reflection coatings.
13. Lots of Coating Co bought Macleod coating software but I discussed with our computer Department people what I want and make them a coating software. That was very good program. This program helped me to make so many new products. For example, coating material index changes according to progress during the coating run. Most programs ignore such phenomena. But ours was

생활상식

내가 할 수 있는 TAX 절세방법

이한주(Han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rlitos3840@gmail.com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내고 있는 Tax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Tax를 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Income tax를 내고 물건 구매나 외식을 할 때도 Sales tax를 내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이윤이 창출하면 Capital tax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Estate tax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지 대략 짐작조차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많은 분이 세금 보고 시 over pay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실 수 없이 Tax filing을 통하여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신다는 것이 통계자료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오래전 부터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Tax code에 의해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준비할 것을 장려하는 목적인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고, 출산이나 이민정책을 통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세금 축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셜 연금이 고갈된다, 메디칼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수년 전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에서 주는 401K, 403B, TSA, TSP, 개인이 하는 IRA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Sep IRA 등이 대표적으로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금 납부를 연기시켜주어 부담을 줄여주고 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Tax code를 통해서 플랜을 만들어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재 내야 하는 택스 세율을 줄이고 줄이는 만큼 은퇴계좌를 만들어 이자를 받고 돈을 증식시키는 장점을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자 같은 경우 UBOS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회계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세금 혜택을 보시는 상황에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Tax code에 의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찾아서 매년 세금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사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가 넘는 Tax code에 의해서 세법 전문변호사 그룹이 여러분의 상황을 검토 후 최대한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업과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자와 부동산, 보험 에이전트같은 독립계약직, 여러 형태의 자영업자분들이 속하게 되고 그 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를 통하여 많은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도 얼마든지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저축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Tax를 합법적으로 줄이고 최대한 절세의 효과를 누리는 것 또한 부를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오늘날의 유대인들, 세금 절세를 통하여 지금의 그들이 탄생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교육을 통하여 후손 대대로 이어지고 실행으로 옮기고 습관화하므로 그들의 경제상황이 점점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에 정부로부터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자녀들의 책임으로 어마어마한 세금납부가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Tax세율 인상안이 발표되어 작년과 다르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앞으로 수많은 세금 인상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Tax code가 있음으로 이러한 세법에 따라 나의 귀중한 재산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역소식

아마존의 알버커키 시설 추가확장

Amazon이 알버커키 서쪽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문 처리 센터가 원래의 계획보다 더 확장시킬 예정이라고 알버커키 저널의 3월5일자 신문에서 보도했다.

아마존 회사는 5 층 규모인 250 만 평방 피트의 주문 처리 센터를 건설 중에 있는데 Atrisco Vista Boulevard 및 Interstate 40 근처의 같은 캠퍼스에 27 만 평방 피트의 분류 센터를 추가 건설한다고 3월4일 발표했다.

Bluewater Road 와 Airport Drive NW에 신설한 아마존 배송소(delivery station)도 올해 초 문을 열었다.

버날리오 카운티 커미셔너 인 Debbie O'Malley는 “Amazon은 우리 지역에 매우 큰 투자를하고 있어서 직업면에서 지역 사회에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O'Malley는 3 개의 사이트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자리는 시간당 15 달러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마존 대기업이 작년에 발표 한 주문 처리 센터와 분류 센터는 모두 2021 년 후반에 운영을 시작 할 예정이다.



샌디아 연구소 인력 크게 늘어나

뉴멕시코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 인 Sandia National Laboratories는 지난 5 년 동안 인력 규모를 거의 20 %까지 늘렸다. 지난 1년동안 세계적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1,000 명 이상 인력을 채용했다. 알버커키의 샌디아국립 연구소에는 현재 약 12,700 명의 직원이 있다. 최근 연구실에서 작성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16 년에 약 10,700 명이 근무했던 인원에서 약 2,000 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출처: ABQ Journal, Business Outlook, 2021-2-1



아마존의 대변인 Lisa Guinn은 고객의 주문은 주문 처리 스테이션에서 시작되고 패키지는 분류 센터로 배송되며, 분류 센터에서 우편 번호로 패키지를 분류하고 패키지는 목적지로 직접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이 작년에 뉴멕시코로 사업 확장한다고 발표했을 때 분류 센터와 배송 스테이션은 원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사진: 뉴멕시코에있는 아마존 최초의 주문 처리 센터의 건축 조감도.



지역소식

부고 - OBITUARIES

로버트 켈크햄 교수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 거주하시던 Robert G. Kirkham(로버트 G 켈크햄) 교수는 2021 년 1 월 15 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1937 년 9 월 10 일 멤피스 테네시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알렉산더 해밀턴 고등학교를 마치고 1971



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1975 년에 그는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공부를 계속하면서 1975 년부터 1979 년까지 로버트는 캘리포니아 라호야의 Scripps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해양 연구를 위한



LANDSAT-1 MSS 디지털 이미지의 컴퓨터 처리'라는 책을 저술하여 출판했습니다.

1979 년부터 그는 Victor Valley College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2008 년 은퇴 할 때까지 29 년 동안 강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1982 년 아내 신경순과 결혼했고 대학교에서 은퇴한 후에 2017 년 알버커키 뉴멕시코로 이사했습니다. 유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신경순과 네바다 주 Reno에

살고있는 그의 형제 Roger Kirkham과 그의 아내 Dee 가 있습니다.

로버트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헌신적 인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음악 감상과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남은 친구와 가족은 떠나버린 그를 많이 그리워 할것입니다. 조의를 표시하실 경우에는 고인이 섬겨온 알버커키 한인 연합 감리 교회 (KUMC in ABQ,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남편을 잃은 신경순씨는 이찌반 식당과 A-1 한국식품을 운영하시는 전 한인회장 신광순 권사의 누님이십니다.)

한명섭 선생

한영수씨의 부친 한명섭 선생님께서 2021 년 2 월 16 일 아침에 소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명섭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한인회 이사로 한인회에 봉사하셨으며 오랜 기간 어버이회 회원이셨습니다.

긴 세월을 백혈병으로 투병하시면서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항상 담담하게 이겨 나가셨습니다.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인사회를 이해와 포용으로 지켜 보시던 그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으로는

아들 한영수, 손자 한바다

딸 최영미, 손녀 최바니

장례예배는 2 월 19 일 금요일 오후 4 시 한인회관에서 김민순 목사 집례로 드렸습니다.

지역소식

새 COVID-19 J&J 백신 추가

새로 승인 된 Johnson & Johnson COVID-19 백신 17,000 회 이상의 용량이 수요일 뉴멕시코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뉴멕시코주의 최근 주간 백신 할당량의 30 % 증가한 것이라고 알버커키 저널(3월2일)이 보도했다.

지난 2월 말 Johnson & Johnson 백신은 COVID-19 퇴치를 위한 긴급 사용에 대해 미국 식품의 약국(FDA)의 승인을받은 세 번째 백신이 되었다. 먼저 나온 Pfizer나 Moderna vaccine과는 달리 1회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 백신이다.

백신접종을 아직 맞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접종신청을 해 주실것을 주정부에서 권하고 있다.

cvvaccine.nmhealth.org ■



라스 크루세스 김명주씨 회갑연

지난 2월 13일 라스크루세스에 계신 김명주(Myong C Kim O'Donnell)씨의 회갑을

마지 하여 Sleep Inn University 호텔에서 축하연을 베풀었다.

슬하의 4자녀(Erin, Michael-Sean, Sheridan, Shannon)가 지역 친지를 다수 초대하여 뜻깊은 행사를 잘 마쳤다고 한다.



2021 **말씀사경회**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온라인 Zoom meeting
ID : 482 151 0779
Passcode : 2200

첫째 기둥	3. 29 (월) 8:00 pm 예배 이행복을 430-26	강사: 김명준 목사 129 905 975-0122 mjkim31@gmail.com www.gallileeabq.com
둘째 기둥	3. 30 (화) 8:00 pm 교제 유한영씨 23-4	
셋째 기둥	3. 31 (수) 8:00 pm 훈련 로마에 838-7-20	
넷째 기둥	4. 1 (목) 8:00 pm 사역 이행복씨 28-1-10	
다섯째 기둥	4. 2 (금) 8:00 pm 사명 이행복을 28-8-1-20	

서울대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영남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미국 칼리포르니아주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영남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2021 **명강사 초청 특강**
가정을 세우는 크리스천 홈

온라인 Zoom meeting
ID : 482 151 0779
Passcode : 2200

초청 강사: 이종천 교수
부제: Peace Cycle의 4년 Peace Cycle 만들기
Fullerton 대학 신학대학원
장로교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학위 취득
한(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신학 석사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학부 교수이자 전사

이종천 교수
4. 8 (목) | 8:00 pm
4. 15 (목) | 8:00 pm
4. 22 (목) | 8:00 pm

김민준 목사
(장로교 장로교도 임명)
4. 29 (목) | 8:00 pm
5. 6 (목) | 8:00 pm

“우리 복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Zoom) 10:00 am (Sunday)

새벽기도회 7: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무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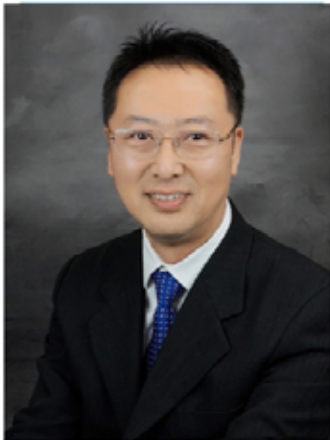
알버커키 Albuquerque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주택용자 Loan Officer
건축/페인트 Painting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김미경 Mi Kyong Kim 6745 Academy Rd,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208-4961 Cell: (505) 379-2944 mikyong.kim@flagstar.com Flagstar Bank
공인회계사 CPA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중재서비스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교회 Church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Salon 47 (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치과 Dental Clinic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변호사 Law Firm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자동차정비 Auto Repair	태권도 TaeKwonDo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부동산 Realtors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단요가 Dahn Yoga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리커스토어 Liquors	세탁소 Dry Cleaners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화밍톤 Farmington
호텔 Hotel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라스베가스 Las Vega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산타페 Santa Fe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리오란초 Rio Rancho	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 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1년 3/4월호 발행일 : 2021.3.1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텍스절세플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Call Today!

213-321-87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